

독일 주스 시장 보고서

2011. 7

1. 시장개요

- 독일에서 판매 중인 주스는 제품 종류 구분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 주스시장의 동향에 앞서 제품종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봄

■ 독일 주스 종류

- 주스는 크게 과일 또는 야채 성분을 포함했느냐에 따라 과일 주스 또는 야채주스로 구분할 수 있음
- 과일 주스는 과즙의 함량에 따라 100%인 과일주스 (fruit juice)와 과즙함량 30-99%인 넥타, 최대 29%를 함유하고 있는 과일음료 (fruit drink)로 구분됨
- 또한 100% 과일주스의 경우, 제조방법에 따라 비농축 주스 (Not from concentrate, NFC)와 농축 주스 (from concentrate)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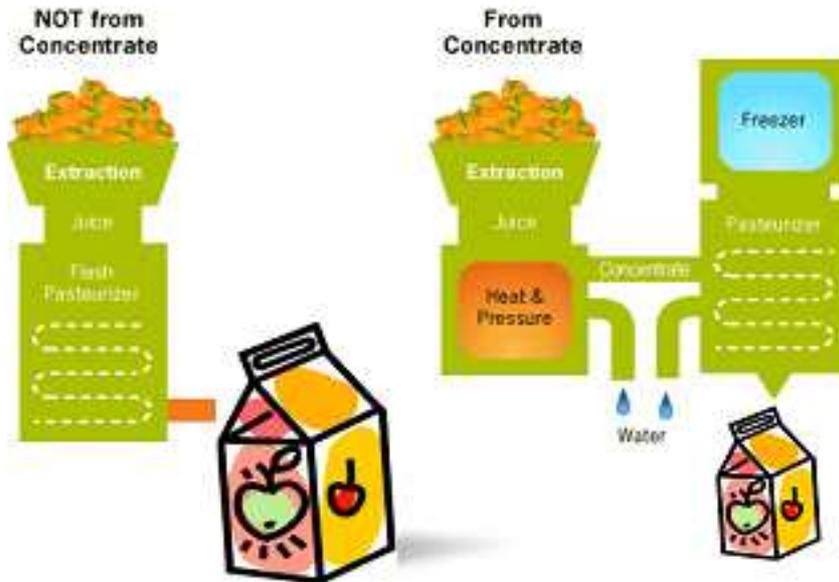
< 주스의 종류 >

구 분		주스 종류	
과일주스	과즙 100%	100% 주스 (100% Juice)	비농축 주스 농축 주스
	과즙 30-99%	넥 타 (Nectar)	
	최대 29%	과일 음료 (Juice Drink)	
야채 주스			

(자료: 유로모니터)

- 비농축 주스는 과일에서 추출한 과즙을 바로 살균처리하여 제조되는 주스임
- 농축 주스는 과일의 원산지에서 주스 제조공장까지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일 원산지에서 과일을 수확한 후 과즙을 추출하여, 이 과즙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만든 농축액을 바탕으로 제조되는 주스임
- 과일 농축액은 과일 원산지에서 주스 제조 공장으로 운반되고 이 공장에서 농축액에 다시 물을 첨가 후 살균 처리 과정을 거쳐 제조됨

< 100% 주스의 제조과정 >



■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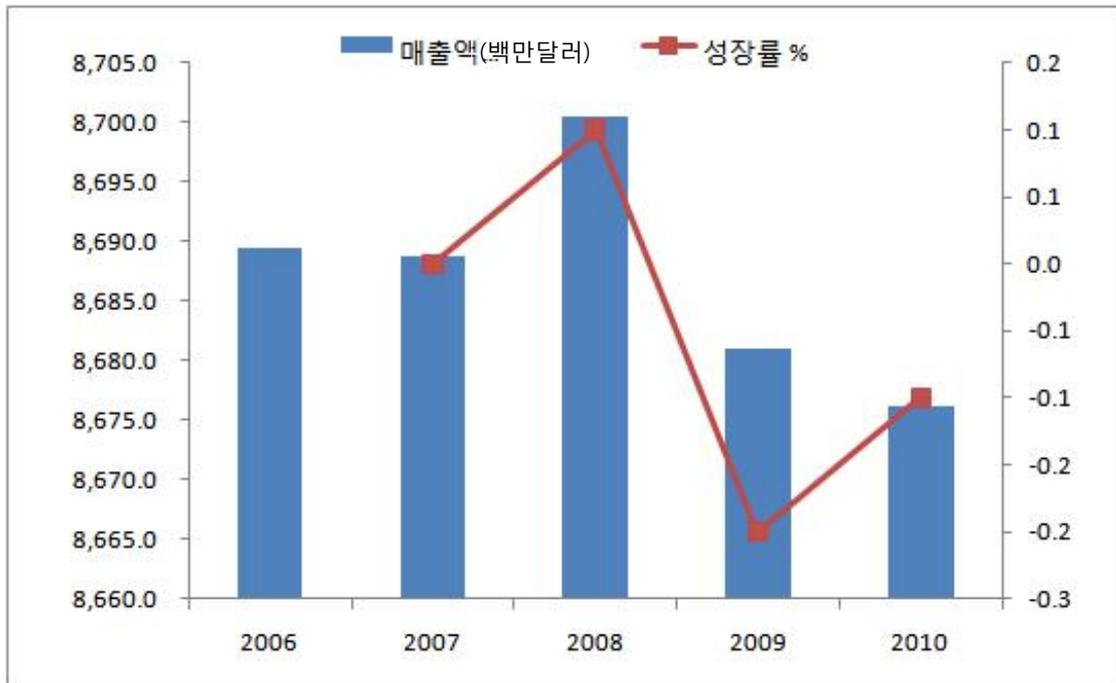
-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독일 주스시장의 규모는 86.8억 달러, 한화 9.3조 원 가량으로 나타남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개년의 주스시장 규모 동향을 살펴보면 2006-08년에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연속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 결과 2006-10년 전체적인 주스시장 규모는 0.15% 가 감소하였는데 2008-9년 -0.2%에서 2009-10년에는 -0.1%로 마이너스 성장률 폭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5년에는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데이터모니터는 예측하고 있음

< 2006-10년 독일 주스시장 규모 (매출액 기준) >

연 도	백만 달러	백만 유로	성장률 %
2006년	8,689.5	6,559.5	
2007년	8,688.8	6,559.0	0.0
2008년	8,700.5	6,567.8	0.1
2009년	8,681.0	6,553.1	-0.2
2010년	8,676.1	6,549.4	-0.1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 2006-10년 독일 주스시장 동향 >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 반면 2010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독일 주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가 감소한 3,659.9백만 리터를 집계됨
- 2006-10년의 독일 내 주스 판매량은 2006년 38억 리터에서 연평균 약 1.0%씩 매해 감소하여 2010년에는 36.6억 리터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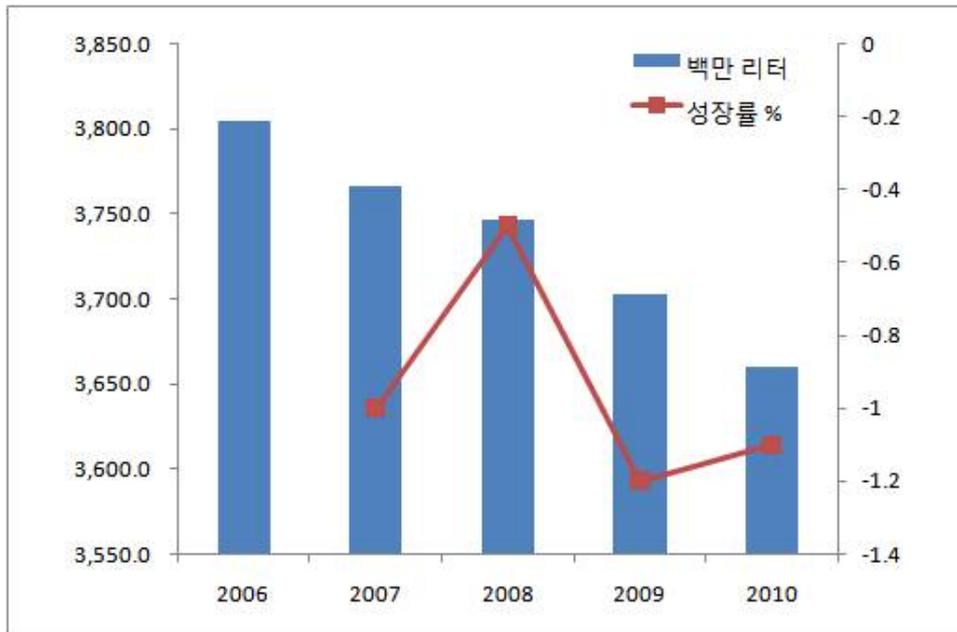
< 2006-10년 독일 주스시장 규모 (판매량 기준) >

연도	백만 리터	성장률 %
2006년	3,805.1	
2007년	3,766.5	-1
2008년	3,746.1	-0.5
2009년	3,702.3	-1.2
2010년	3,659.9	-1.1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 동기간의 판매량과 위에서 살펴본 매출액 동향을 비교해 보면 판매량은 지속해서 감소한데 반해 매출액은 2008년 증가하였고, 매출액의 감소폭보다 판매량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주스 가격이 상승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음

< 2006-10년 독일 주스시장 동향 (판매량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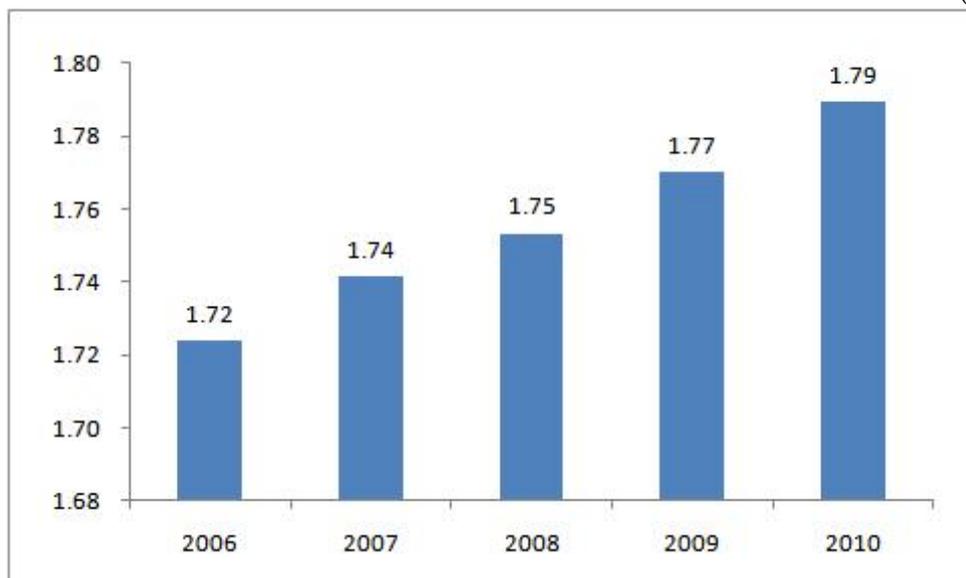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 아래 그림을 보면 2006년 이후 5년간 리터당 주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주스 가격의 상승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독일의 주스 시장규모 축소 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6-10년 독일 주스 판매가격 동향 >

(단위: 달러)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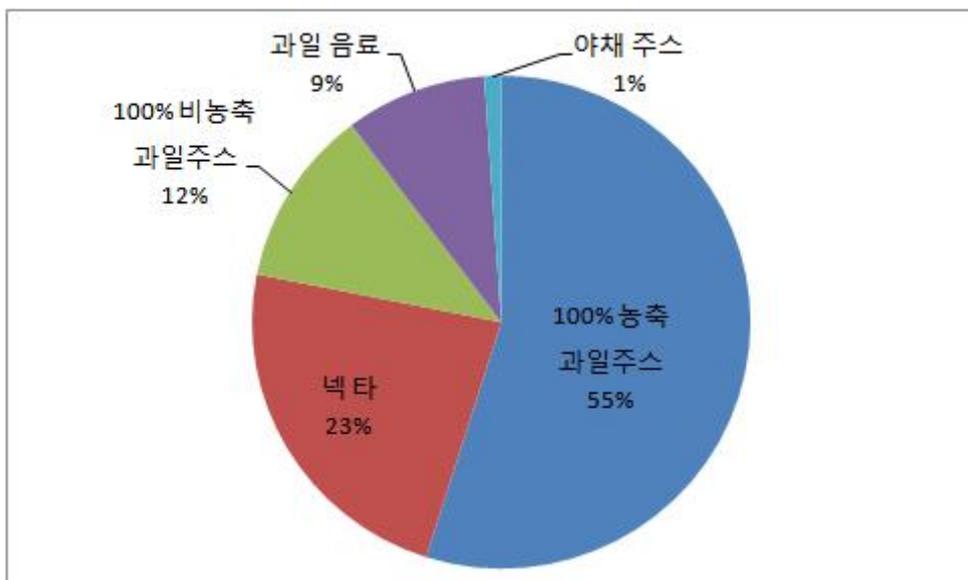
■ 주스 종류별 시장점유율

- 매출액을 기준으로 독일 주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제품 유형은 100% 농축 과일주스로, 절반이 넘는 5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다음으로 넥타 23.2%, 100% 비농축 과일주스 11.6% 순이었으며 야채 주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낮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100% 과일주스 중 농축 과일주스가 비농축 형태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주스 종류별 시장 점유율 >

구 분	시장점유율 (%)
100% 농축 과일주스	54.9
넥 타	23.2
100% 비농축 과일주스	11.6
과일 음료	9.2
야채 주스	1.1
합 계	100.0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 주스 종류별 맛별 시장 점유율

- 판매량을 기준으로 100% 주스 중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과일은 사과로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렌지 34%, 기타 과일 14%, 혼합과일 9% 순으로 집계됨
- 2005-10년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pm 0.5\%$ 범위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변하고 있으며 최근 6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의 차이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독일 소비자들이 100% 주스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새로운 맛의 주스를 선호하기 보다는 기존에 사과 또는 오렌지를 중심으로 구매하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이는 100% 주스 제품 시장에는 새로운 맛의 제품이 출시되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 2005-10년 100% 주스 맛별 시장 점유율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 과	43.5	43.5	44.0	44.5	44.0	43.0
혼합 과일	9.0	9.0	9.0	9.0	9.0	9.0
오렌지	33.5	33.0	33.0	33.0	33.5	34.0
기타 과일	14.0	14.5	14.0	13.5	13.5	1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유로모니터 2011)

- 반면, 넥타 제품에서는 연도별로 맛별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다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05-10년 넥타 맛별 시장 점유율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 과	24.0	24.5	25.0	25.2	25.4	25.0
혼합 과일	30.0	29.5	29.0	28.5	28.0	27.5
오렌지	21.0	20.5	20.0	19.5	19.0	19.0
기타 과일	25.0	25.5	26.0	26.8	27.6	28.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유로모니터 2011)

- 2010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기타 과일 28.5%로 나타났으며 혼합 과일 27.5%, 사과 25%로, 세 가지 맛 제품이 각각 25-30% 사이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2005년 이후의 시장 점유율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과일의 비중은 25%로 혼합과일 30%보다 5%가 낮았으나 기타 과일의 판매량은 매년 0.5-1%씩 꾸준히 성장하여 혼합과일의 시장 점유율을 능가함
- 반대로 혼합과일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30%에서 매년 0.5%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7.5%를 기록함
- 오렌지와 사과는 소폭으로 시장 점유율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즙 함량이 29% 이하인 주스음료의 맛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사과가 24%로 가장 높고 감귤류 22%, 오렌지 20.5% 순으로 조사됨
- 반면 자몽은 1% 미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도 2.8%, 혼합 야채 3.5%도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세 가지 맛 제품을 보면 사과와 오렌지와 같은 전형적인 주스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05-10년 주스음료 맛별 시장 점유율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오렌지, 당근, 레몬	11.0	10.5	10.0	9.5	9.3	9.0
사과	26.0	25.0	24.5	24.0	23.5	24.0
감귤류	19.0	20.0	21.0	21.4	21.6	22.0
포도	1.7	2.0	2.3	2.6	2.9	2.8
자몽	0.6	0.7	0.8	0.8	0.9	0.9
혼합 과일	8.4	8.3	8.5	8.5	8.7	9.0
혼합 야채	3.3	3.2	3.1	3.2	3.3	3.5
오렌지	22.5	22.0	21.5	21.0	20.7	20.5
배	0.5	0.5	0.6	0.7	0.7	0.5
기타 과일	6.9	7.8	7.8	8.3	8.5	7.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유로모니터 2011)

- 반면 감귤류는 2005년 19%에서 매년 0.4-1%씩 상승하여 2010년에는 22%로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함
- 위의 넥타와 주스음료의 맛별 시장 점유율 조사 결과는 독일 소비자들이 100% 주스제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맛을 찾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제품이 독일 시장에 진출할 때는 100% 주스제품 보다는 넥타 또는 주스음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 독일의 주스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의 점유율이 불과 20.4%에 지나지 않고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브랜드도 총 2개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독일 주스 시장이 소수 대형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대형업체와 수많은 소규모 지역적 업체들이 각기 작은 비중을 차지, 시장 전체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아래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표를 보면 Pepsi의 Punica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독일 업체들이어서 외국에서 수입된 일반적인 주스 제품이 독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코카콜라의 Minute Maid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 보다는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On-trade 유통채널을 통해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독일에 없었던 새로운 영양학적 특성을 강조하거나 독특한 생산 방식을 강조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 독일 주스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Aldi, Lidl과 같은 디스카운터 업체들의 자사 라벨 제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며 실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더 많은 소비자들이 대부분의 자사라벨 제품들이 일반 주스 회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다 저렴한 자사라벨 제품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일반 주스 제조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 대표 주스 제조업체로는 Eckes-Granini GmbH와 Albi GmbH & Co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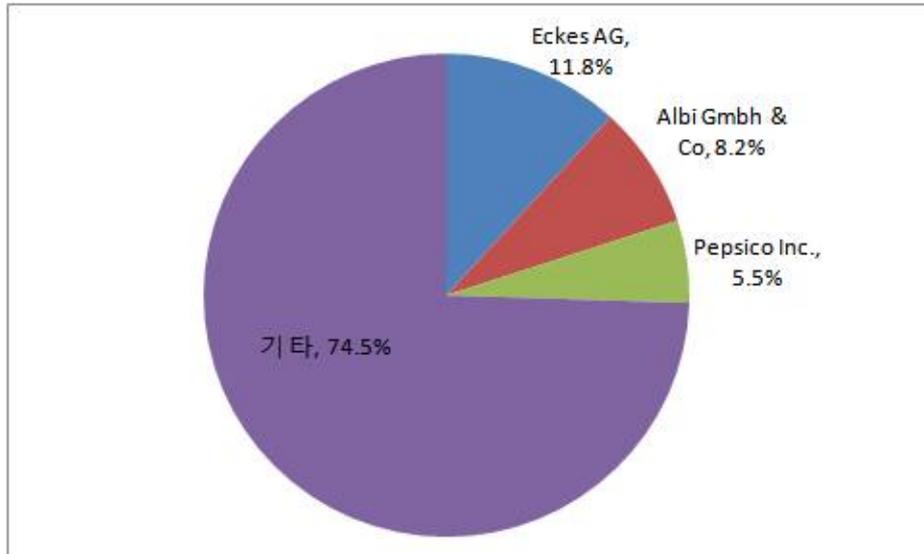
< 2007-10년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

브랜드	회사명	이미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Aldi	Aldi Einkauf GmbH & Co oHG		16.1	18.5	19.5	20.4
Lidl	Lidl & Schwarz Stiftung & Co KG		13.7	14.4	15.1	15.8
ja!	Rewe Markt GmbH		8.1	8.2	8.1	8.2
Hohes C	Eckes-Granini GmbH		5.8	6.4	7.1	7.3
Punica	PepsiCo Deutschland GmbH		4.6	4.8	4.9	5.3
Albi	Albi GmbH & Co		3.8	4.2	4.5	4.6
Capri-Sonne	Deutsche Sisi-Werke GmbH & Co KG		3.3	3.4	3.4	3.6
기타 자사 라벨			3.9	3.7	3.3	3.2
Granini	Eckes-Granini GmbH		2.9	2.9	3.0	3.0
Becker's Bester	Neu's Fruchtsäfte GmbH & Co KG		1.2	1.2	1.2	1.3
Döhles	Hans Döhle GmbH		0.9	0.9	1.0	1.0
Niehoffs Vaihinger	Tucano Vertriebs-GmbH & Co KG		1.2	1.1	1.0	1.0
Sunkist	Sportfit Fruchtsaft GmbH		0.8	0.8	0.8	0.8

	& Co KG					
Frucht Tiger	Eckes-Granini GmbH		0.6	0.8	0.8	0.8
Krings	Krings Fruchtsaft GmbH		0.6	0.5	0.5	0.5
NEUs	Neu's Fruchtsäfte GmbH & Co KG		0.4	0.4	0.4	0.4
Dr Koch	Eckes-Granini GmbH		0.4	0.4	0.4	0.4
Frispa	Frispa GmbH		0.2	0.3	0.3	0.3
Paradise	FSP Frischsaft Produktions GmbH		0.2	0.3	0.3	0.3
Wesergold	riha Richard Hartinger Getränke GmbH & Co KG		0.2	0.3	0.3	0.3
Valensina	Sportfit Fruchtsaft GmbH & Co KG		0.2	0.3	0.3	0.3
Hitchcock	Sportfit Fruchtsaft GmbH & Co KG		0.2	0.2	0.2	0.2
Natreen	Krings Fruchtsaft GmbH		0.2	0.2	0.2	0.2
기 타			30.5	25.8	23.5	20.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유로모니터 2011)

< 2010년 주요 주스 회사의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 >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 독일 과일 주스 생산자 협회에서 발표한 독일 지역별 주스 제조업체 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주스 제조업체수가 20-40여개까지 달하고 있어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독일 지역별 주스 제조업체수 및 매출액 현황 >

구 분	회사수		매출액 (백만 유로)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Baden-Württemberg	40	41	402	361
Bavaria	17	16	82	47
Brandenburg/Berlin	14	14	57	48
Hesse	14	14	464	462
Mecklenburg-Western Pomerania	3	3	48	117
North	26	25	949	847
Rhineland-Westphalia	26	25	994	963
Rhineland-Palatinate/Saarland	30	28	1,138	1,033
Saxony	12	10	69	15
Saxony-Anhalt	6	6	32	12
Thuringia	5	5	5	5
합 계	193	187	4,240	3,910

(자료: 독일 과일 주스 생산자 협회 웹사이트)

2. 유통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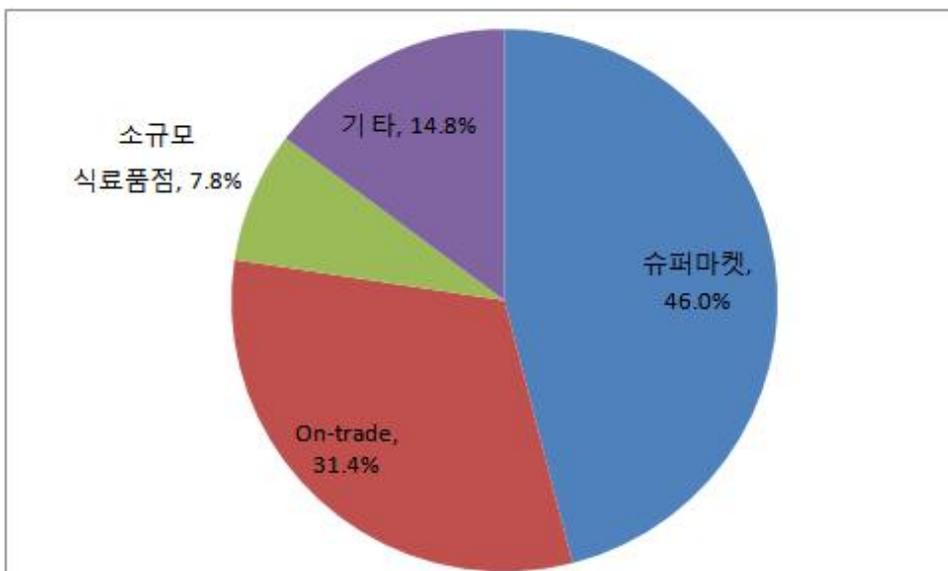
■ 유통채널별 판매량

- 주스제품의 유통채널은 크게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소규모 식료품점을 포함한 off-trade와 펍과 클럽, 레저시설, 각종 케이터링 업체 (Hotel, Restaurant & Cafeteria) 및 자판기를 통한 on-trade로 구분할 수 있음
- 데이터모니터에서 추정한 2010년 주스제품의 유통채널별 판매량 비율 자료에 따르면 판매량을 기준으로 전체 주스제품 중 off-trade로 판매된 비율이 68.6%, on-trade를 통한 판매가 31.4%로 집계됨
- 이를 더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된 양이 46%로 가장 크고, on-trade 31.4%, 기타 14.8%, 소규모 식료품점 7.8%로 나타남

< 2010년 주스제품 유통채널별 판매량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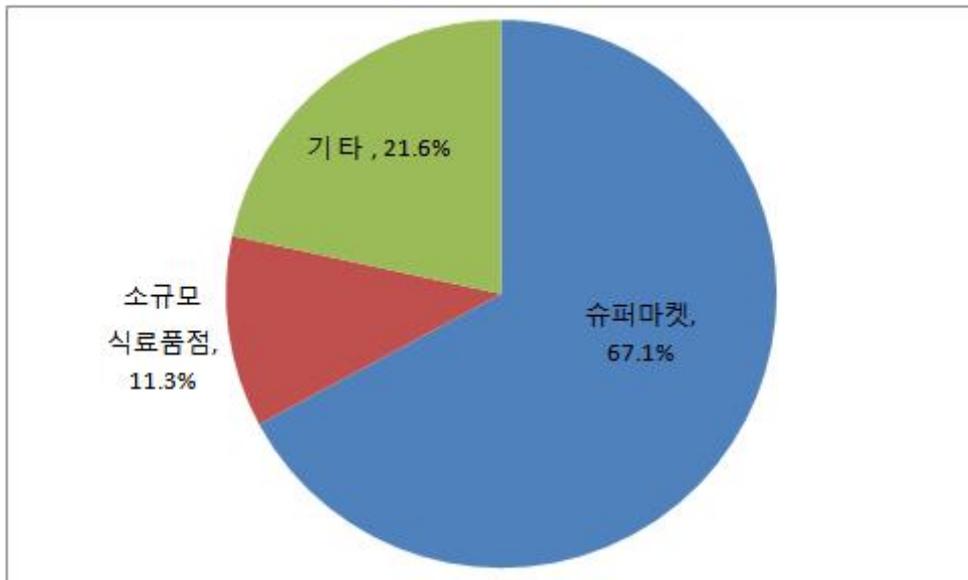
구분	비율 (%)
슈퍼마켓	46.0
온-트레이드	31.4
소규모 식료품점	7.8
기타	14.8
합계	100.0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 2010년 주스제품 off-trade 유형별 판매량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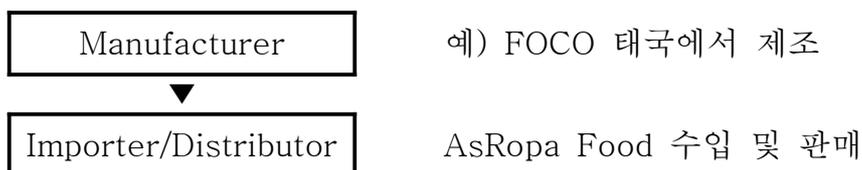
(자료: 데이터모니터 2011)

- Off-trade를 1로 환산하여 off-trade 유형별로 판매량 비율을 보면 슈퍼마켓을 통한 판매량 비중은 67.1%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off-trade가 21.6%, 소규모 식료품점은 11.3%로 나타남

■ 수입 제품의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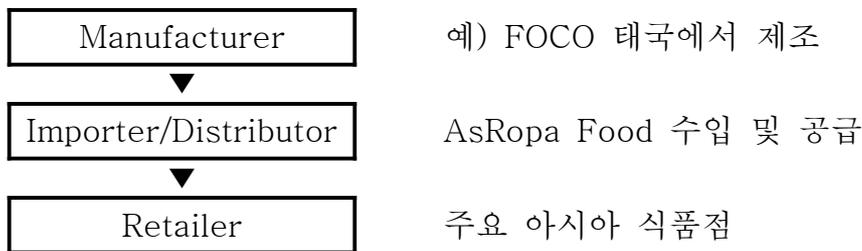
- 독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주스의 유통경로는 몇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장 짧은 단계는 수입회사들이 자사 소유의 소매매장을 통해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임
- 이 유통경로는 수입회사가 소매매장을 가지고 소매업도 겸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는 낼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유통경로로 판매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수입 주스제품 유통경로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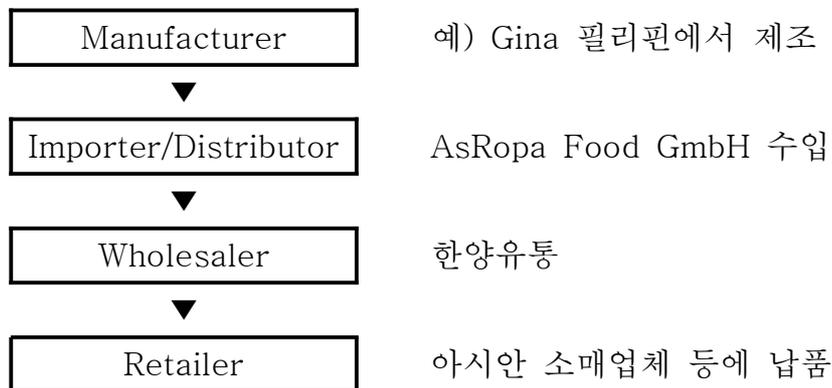
- 두 번째 경우는 수입회사가 현지 유통업체 및 아시아 식품 소매점에 바로 공급하는 경우로 독일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직접 수입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이 경로를 선호하고 있음
- 수입 주스 제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유통 중일 것으로 판단됨

< 수입 주스제품 유통경로 2 >



- 세 번째 가장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경우로, 도매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후 아시아 식품점으로 공급하는 경우임
- 이 경로는 주로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 일본, 한국계 대형 업체들은 이 3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들 제품을 전문으로 수입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음

< 수입 주스 제품 유통경로 3 >



- 대부분의 수입/도매업체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제품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형 아시아 식품점의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한 도매업체에서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주문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경로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타수입산의 진출상황

- 현재 독일 내 타수입산 주스는 아시아 식품 전문 식료품점에서만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아시아 식품 전문 소매점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 OKF에서 제조한 Aloe Vera King 제품류, 태국 FOCO에서 제조한 과일주스 및 Panchy 과일주스, 그리고 필리핀 주스인 Gina가 있음
- 대부분이 태국과 필리핀에서 수입된 제품들로 코코넛, 파인애플, 망고, 구아바 등의 열대과일 주스 음료들이 많아 한국 제품들과는 다른 맛을 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제품 패키지를 비교해 보면, 한국 제품들은 캔보다는 180ml 사이즈의 병 또는 페트병 500ml 또는 1.5l 사이즈가 골고루 보이는 반면, 태국과 필리핀에서 수입되고 있는 제품들은 캔에 든 제품이 많아 180ml 또는 200ml 사이즈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알로에 베라 주스의 경우, 한국산 (OKF)과 태국산 (FOCO) 제품이 가장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 아시아 식품 전문 소매점에서 판매중인 주스제품 >

원산지	제조회사 및 제품	이미지	비고
한국	OKF 알로에 베라		- 아시아 식품 전문 소매점에서 판매 - 캔, 500ml, 1.5l 사이즈
태국	FOCO		- 아시아 식품점에서 대중적으로 판매 - 망고, 코코넛, 구아바 등 10여 가지 맛
	Panchy		- 아시아 식품점에서 판매 - 망고, 패션 푸룻, 파인애플, 열대과일 등

필리핀	G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계 아시아 식품점 및 일부 대형 아시아 식품점에서만 판매 - 파인애플, 망고 등 여러 가지 열대과일 맛
-----	------	---	---

(자료: 직접조사)

3. 소비동향

■ 주스 제품 소비량 동향

- AIJN 유럽 과일 주스 협회에서 2011년에 발표한 ‘2010년 유럽 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주스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독일인은 연간 3,193백만 리터를 소비하여 유럽 1위를 차지함
- 이는 2위 프랑스 1,651백만 리터, 3위 영국 1,435백만 리터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독일은 유럽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스 섭취량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상위 주스 소비국 >

Country	Million litres
Germany	3,193
France	1,651
United Kingdom	1,435
Spain	1,078
Poland	749
Others	3,154
Total	11,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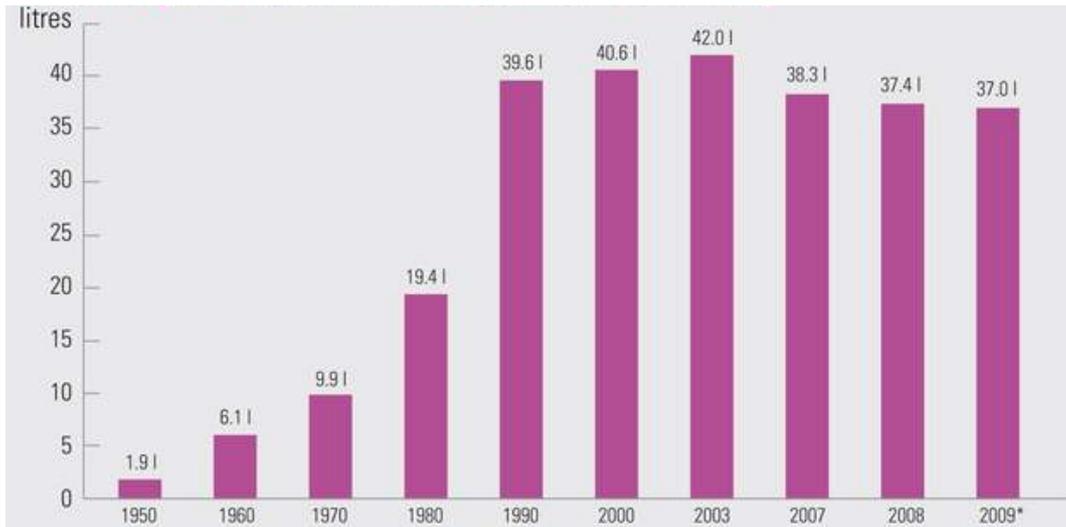
(자료: AIJN 유럽 과일 주스 협회 2011)

■ 1인당 소비량 동향

- 2009년, 독일 국민 1인당 주스 소비량은 37.01리터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10년간의 주스 소비량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까지는 주스 소비량이 증가, 최고치인 42.01리터에 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면서 2009년 37.01리터를 기록함
- 이는 2003년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약 12%가 감소한 수치로 약 20년 전인 1990년보다도 약 6.6%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 독일 주스 시장 자체가 성숙기를 지나 최근에는 후퇴기에 접어들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독일 국민 1인당 주스 소비량 >



(자료: AIJN 유럽 과일 주스 협회 2011)

4. 수입동향

■ 전체 수입규모 동향

- 독일의 주스 제품 수입규모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제 무역 통계를 통해 HS 코드 2009 과일/야채주스로 검색한 결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10년 독일이 수입한 주스의 규모는 2009년과 비교하여 1.5%가 감소한 13.6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독일이 주스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원산지는 네덜란드로, 수입액은 2억 4천여 달러, 수입량은 18만 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2008-10년 수입규모 상위 20개국 동향>

(단위: 천 달러, 천 kg,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2008-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 체	1,840,967	-	1,375,644	-	1,355,112	-	-1.5	-	-26.4	-
네덜란드	252,444	195,626	229,332	204,925	241,520	180,478	5.3	-11.9	-4.3	-7.7
오스트리아	175,310	83,204	104,674	92,737	121,296	112,115	15.9	20.9	-30.8	34.7
폴란드	162,305	105,035	113,733	120,207	111,704	107,007	-1.8	-11.0	-31.2	1.9
이탈리아	155,081	166,993	114,448	156,656	110,453	164,737	-3.5	5.2	-28.8	-1.4
벨기에	70,613	36,644	54,878	43,061	76,702	66,299	39.8	54.0	8.6	80.9
포르투갈	30,976	14,649	24,986	15,305	32,655	25,608	30.7	67.3	5.4	74.8
헝가리	18,660	13,534	26,307	29,584	29,582	20,814	12.4	-29.6	58.5	53.8
스페인	42,161	37,969	41,062	42,813	27,691	24,937	-32.6	-41.8	-34.3	-34.3
브라질	31,807	36,040	27,192	37,799	26,918	26,447	-1.0	-30.0	-15.4	-26.6
중 국	92,930	54,176	57,224	80,681	23,972	24,939	-58.1	-69.1	-74.2	-54.0
터 키	16,226	6,675	8,155	6,736	20,816	14,019	155.3	108.1	28.3	110.0
아르헨티나	5,551	2,679	6,471	2,202	8,903	3,256	37.6	47.9	60.4	21.5
우크라이나	27,709	12,464	6,372	10,113	8,660	8,543	35.9	-15.5	-68.7	-31.5
이 란	18,691	9,307	1,062	1,352	6,211	8,623	484.8	537.8	-66.8	-7.3
세르비아	2,769	1,085	1,817	1,272	6,033	3,913	232.0	207.6	117.9	260.6
몰도바	8,953	3,492	6,379	10,332	5,504	6,811	-13.7	-34.1	-38.5	95.0
스위스	65,398	125,691	31,551	65,995	4,454	7,168	-85.9	-89.1	-93.2	-94.3
프랑스	8,914	9,251	5,755	5,453	4,350	5,027	-24.4	-7.8	-51.2	-45.7
루마니아	2,415	2,213	1,473	2,065	4,201	3,697	185.2	79.0	74.0	67.1
체 코	7,907	6,193	1,960	2,994	3,977	4,021	102.9	34.3	-49.7	-35.1

(자료: GTA)

- 네덜란드에 이어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가 각각 2-4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4개국에서 수입된 주스의 규모는 금액으로는 1억 달러, 물량으로는 10만 톤 이상을 기록함
- 이 4개국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의 수입규모 동향을 보면 수입금액은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낸 반면,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수입물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냄
- 위의 상위 20개국 중에 아시아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게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3년 연속으로 수입액과 물량이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아시아 제품 수입규모 동향

- 2010년 아시아 국가에서 독일로 수출된 주스의 규모를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연간 십만 달러 이상의 주스를 수출한 국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2개국뿐으로 나타났으며 1백 톤 이상 수출한 국가는 태국, 1개국으로 조사됨
- 최근 3년간의 동향을 보면, 2008년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규모가 이십만 달러, 1백 톤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대폭 감소하여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과 1만 3천 달러, 필리핀은 4천 달러로 나타남

< 아시아 주스 수입규모 동향 >

(단위: 천 달러, 천 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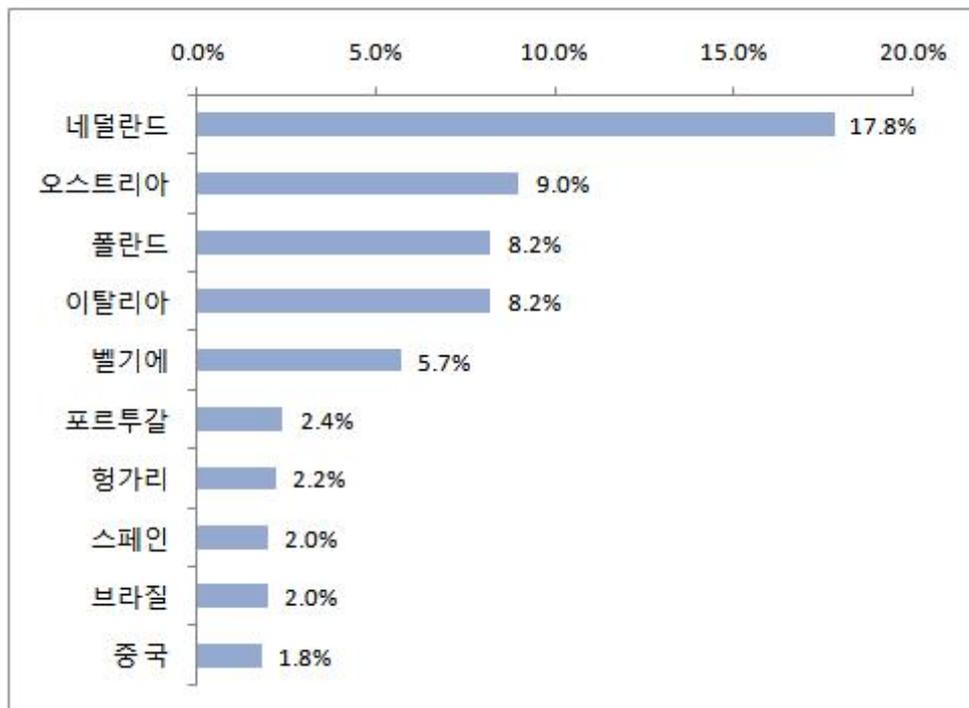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2008-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중 국	92,930	54,176	57,224	80,681	23,972	24,939	-58.1	-69.1	-74.2	-54.0
태 국	975	802	1,745	1,152	776	562	-55.5	-51.2	-20.4	-29.9
말레이시아	300	236	134	109	123	97	-8.2	-11.0	-59.0	-58.9
일 본	33	6	16	1	67	4	318.8	300.0	103.0	-33.3
인도네시아	203	160	107	69	13	8	-87.9	-88.4	-93.6	-95.0
필리핀	230	213	205	151	4	2	-98.0	-98.7	-98.3	-99.1
베트남	0	0	31	21	0	0	-100.0	-100.0	0.0	0.0
싱가폴	0	0	3	1	0	0	-100.0	-100.0	0.0	0.0
한 국	16	11	0	0	0	0	0.0	0.0	-100.0	-100.0

(자료: GTA)

■ 수입산별 시장점유율

- 수입규모 상위 10개국의 주스제품이 전체 수입 주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보면, 1위 네덜란드는 17.8%, 오스트리아 9.0, 폴란드 및 이탈리아 8.2%로 나타남
- 또한 이 10개국의 시장점유율을 다 더한다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은 60%에 미치지 않아 다양한 국가들에서 소량으로 수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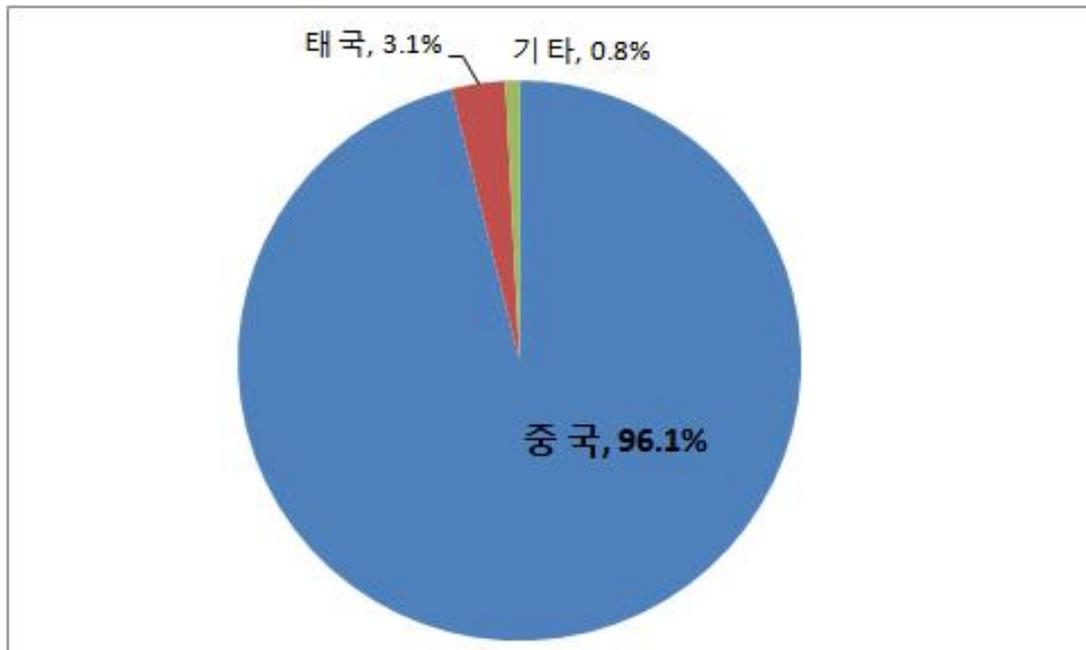
< 수입규모 상위 10개국 주스제품 시장점유율 >



(자료: GTA)

- 아시아 국가들만 별도로 분리하여 시장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중국산 주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96.1%로 압도적으로 높고, 태국이 3.1%, 그리고 기타 7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비중이 불과 1%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현상은 독일 주스 시장은 독일 현지 소수의 대형 업체들과 다수의 소규모 지역 생산자들, 그리고 Aldi 및 Lidl과 같은 디스카운터 유통업체들의 자사라벨 제품들이 주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주스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사료됨

< 아시아 수입산 주스의 국가별 점유율 >



(자료: GTA)

■ 수입가격 비교

- 수입규모 상위 20개국 주스 제품의 단위당 가격을 분석해 보면, 2010년 전체 평균은 1.03달러로, 2009년과 비교하여 무려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2.94달러에 달하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체코로 0.65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주스의 수입가격은 해당 국가의 과일 수확량 및 가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아 해마다 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8년 벨기에산 주스 가격은 1.93달러였으나 2009년에는 전년대비 1/3 수준에 불과한 0.67달러로 하락하였으며 그 다음해에는 두 배로 상승한 1.27달러를 기록함
- 대부분의 수입규모 상위 국가들이 유럽이고 주스의 주원료인 과일의 작황에 따라 가격과 수출량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럽 또는 인근 국가들의 과일 수확 상태에 따라 독일을 상대로 주스 제품 수출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입규모 상위 20개국 주스제품 단위당 가격 >

(단위: 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네덜란드	1.29	0.85	1.12
오스트리아	2.11	0.79	1.13
폴란드	1.55	0.92	0.95
이탈리아	0.93	1.46	0.73
벨기에	1.93	0.67	1.27
포르투갈	2.11	0.59	1.63
헝가리	1.38	0.51	0.89
스페인	1.11	0.92	0.96
브라질	0.88	1.33	0.72
중 국	1.72	0.95	0.71
터 키	2.43	0.82	1.21
아르헨티나	2.07	0.41	2.94
우크라이나	2.22	1.96	0.63
이 란	2.01	8.76	0.79
세르비아	2.55	0.60	1.43
몰도바	2.56	0.55	0.62
스위스	0.52	3.98	0.48
프랑스	0.96	1.61	1.06
루마니아	1.09	1.50	0.71
체 코	1.28	3.16	0.65
평 균	1.64	1.62	1.03

(자료: GTA)

5. 관련 규정 및 수입검사

■ 통관거부 사례분석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유럽 내 주스제품의 통관거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독일로의 주스 수입과정에서 중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함

< 2008-10년 주스제품 통관거부 사례 >

날 짜 (일/월/연도)	검역 국가	원산지	문제사유	후속조치
02/01/2008	스페인	미 국	노니주스에 비승인 물질 E 210 - benzoic acid (609.5 mg/kg - ppm) 와 E 200 - sorbic acid (4579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09/12/2008	핀란드	태 국	파인애플 주스 캔에서 주석검출 (from 250 to 445 mg/kg - ppm)	반송조치
04/03/2009	핀란드	태 국	파인애플 주스 캔에서 주석검출 (224; 221 mg/kg - ppm)	반송조치
09/01/2008	독 일	인 도	오렌지 음료에서 다량의 색소 E 110 - Sunset Yellow FCF (67 mg/l) 검출	반송조치
18/02/2008	핀란드	터 키	유기농 사과주스 농축액에서 omethoate (0.018 mg/kg - ppm) 와 acetamiprid (0.034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22/07/2008	독 일	시리아	오렌지 음료에서 비승인 물질인 E 110 - Sunset Yellow FCF (57 mg/l) 와 E 385 -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 acetate (CDEDTA) 검출	폐기처분
06/10/2008	독 일	사우디 아라비아	오렌지 음료에서 다량의 E 210 - benzoic acid (161 mg/l) 검출	폐기처분
28/11/2008	독 일	사우디 아라비아	오렌지 음료에서 다량의 E 210 - benzoic acid (160 mg/l) 검출	폐기처분
28/11/2008	독 일	인 도	오렌지맛 음료에서 다량의 E 110 - Sunset Yellow FCF (70 mg/l) 검출	강제압류
05/12/2008	독 일	사우디 아라비아	오렌지맛 음료에서 다량의 E 210 - benzoic acid (160 mg/l) 검출	반송조치
05/12/2008	독 일	아 략 에미레이트	오렌지 음료에서 비승인 물질인 E 385 -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 acetate (CDEDTA) 검출	반송조치
11/12/2008	폴란드	필리핀	주스 음료에서 비승인 색소 E 127 - erythrosine 검출	폐기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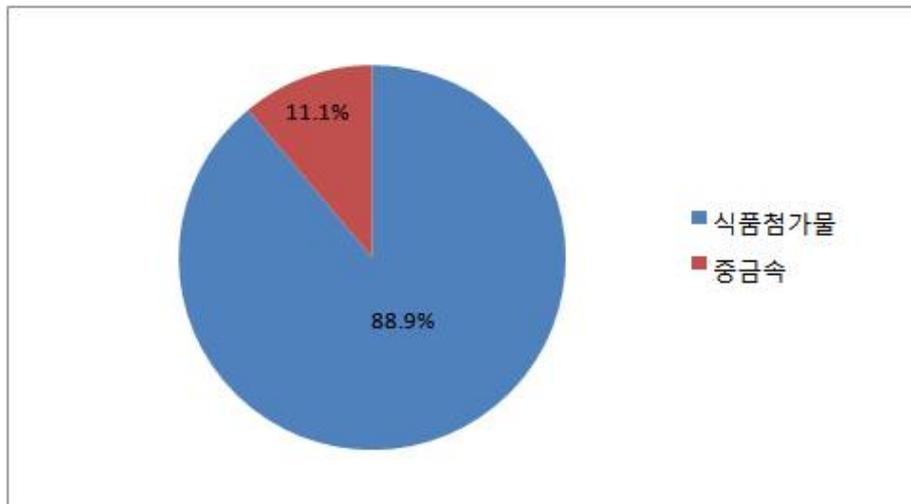
(표 계속)

23/07/2009	독 일	사우디 아라비아	오렌지 음료에서 다량의 E 210 - benzoic acid (160 mg/l)	강제압류
30/11/2009	그리스	파키스탄	망고 주스에서 다량의 E 210 - benzoic acid (235 mg/kg - ppm), 비승인 색소 E 160b - annato/bixin/norbixin, 그리고 사용을 비신고한 E 110 - Sunset Yellow FCF 검출	반송조치
17/12/2009	그리스	터 키	석류 주스에서 비승인 색소 E 124 - Ponceau 4R / cochineal red A (3.9 mg/kg-ppm) 검출	폐기처분
18/01/2010	독 일	아랍 에미레이트	오렌지 음료에서 비승인 물질 E 385 -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 acetate (CDEDTA) 와 미확인 적색 색소 검출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10/03/2010	그리스	조지아	석류 및 라즈베리 주스에서 비승인 색소인 E 122 - azorubine (4.9 mg/l) 와 E 124 - Ponceau 4R / cochineal red A (2.8 mg/l) 검출	반송조치
24/11/2010	스페인	이스라엘	오렌지 주스 농축액에서 다량의 E 210 - benzoic acid (sum of benzoates: 840 ; 920 mg/kg - ppm) 와 sulphite (544; 698 mg/l) 검출	반송조치

(자료: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정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위 통관거부 사례들을 살펴보면 약 89%가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것으로 비승인 물질을 첨가했거나 첨가물을 기준치 이상으로 첨가한 경우고 나머지는 캔 에 든 주스에서 주석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된 경우로 나타남
- 따라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과 중금속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들을 살펴봄

< 통관거부 사례 유형별 비율 >



■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

- 유럽 연합은 식품 첨가물을 기능에 따라 색소, 보존료, 감미료 외에 아래와 같이 총 24가지 종류로 구분함
 - Colour
 - Preservative
 - Anti-oxidant
 - Emulsifier
 - Emulsifying salt
 - Thickener
 - Gelling agent
 - Stabilizer
 - Flavour enhancer
 - Acid
 - Acidity regulator
 - Anti-caking agent
 - Modified starch
 - Sweetener
 - Raising agent
 - Anti-foaming agent
 - Glazing agent
 - Flour treatment agent
 - Firming agent
 - Humectant
 - Sequestrant
 - Enzyme

- Bulking agent
- Propellent gas and packaging gas
- 이 중 주스와 관련 있는 색소, 감미료, 보존료를 중심으로 유럽 연합에서 사용을 승인하고 식품첨가물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유럽 연합에서 사용 승인한 식품첨가물 >

색 소	기 타
E100 Curcumin	E343 Magnesium phosphates
E101 (i) Riboflavin	E350 Sodium malates
(ii) Riboflavin-5'-phosphate	E351 Potassium malate
E102 Tartrazine	E352 Calcium malates
E104 Quinoline yellow	E353 Metatartaric acid
E110 Sunset Yellow FCF; Orange Yellow S	E354 Calcium tartrate
E120 Cochineal; Carminic acid; Carmines	E355 Adipic acid
E122 Azorubine; Carmoisine	E356 Sodium adipate
E123 Amaranth	E357 Potassium adipate
E124 Ponceau 4R; Cochineal Red A	E363 Succinic acid
E127 Erythrosine	E380 Triammonium citrate
E129 Allura Red AC	E385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calcium disodium EDTA
E131 Patent Blue V	E422 Glycerol
E132 Indigotine; Indigo Carmine	E431 Polyoxyethylene (40) stearate
E133 Brilliant Blue FCF	E450 Diphosphates
E140 Chlorophylls and chlorophyllins	E451 Triphosphates
E141 Copper complexes of chlorophyll and chlorophyllins	E452 Polyphosphates
E142 Green S	E459 Beta-cyclodextrin
E150a Plain caramel	E500 Sodium carbonates
E150b Caustic sulphite caramel	E501 Potassium carbonates
E150c Ammonia caramel	E503 Ammonium carbonates
E150d Sulphite ammonia caramel	E504 Magnesium carbonates
E151 Brilliant Black BN; Black PN	E507 Hydrochloric acid
E153 Vegetable carbon	E508 Potassium chloride
E154 Brown FK	E509 Calcium chloride
E155 Brown HT	E511 Magnesium chloride
E160a Carotenes	E512 Stannous chloride

E160b	Annatto; Bixin; Norbixin	E513	Sulphuric acid
E160c	Paprika extract; Capsanthin; Capsorubin	E514	Sodium sulphates
E160d	Lycopene	E515	Potassium sulphates
E160e	Beta-apo-8'-carotenal (C30)	E516	Calcium sulphate
E160f	Ethyl ester of beta-apo-8'-carotenoic acid (C30)	E517	Ammonium sulphate
E161b	Lutein	E520	Aluminium sulphate
E161g	Canthaxanthin	E521	Aluminium sodium sulphate
E162	Beetroot Red; Betanin	E522	Aluminium potassium sulphate
E163	Anthocyanins	E523	Aluminium ammonium sulphate
E170	Calcium carbonate	E524	Sodium hydroxide
E171	Titanium dioxide	E525	Potassium hydroxide
E172	Iron oxides and hydroxides	E526	Calcium hydroxide
E173	Aluminium	E527	Ammonium hydroxide
E174	Silver	E528	Magnesium hydroxide
E175	Gold	E529	Calcium oxide
E180	Litholrubine BK	E530	Magnesium oxide
보존료		E535	Sodium ferrocyanide
E200	Sorbic acid	E536	Potassium ferrocyanide
E202	Potassium sorbate	E538	Calcium ferrocyanide
E203	Calcium sorbate	E541	Sodium aluminium phosphate
E210	Benzoic acid	E551	Silicon dioxide
E211	Sodium benzoate	E 552	Calcium silicate
E212	Potassium benzoate	E553a	(i) Magnesium silicate
E213	Calcium benzoate		(ii) Magnesium trisilicate
E214	Ethyl p-hydroxybenzoate	E553b	Talc
E215	Sodium ethyl p-hydroxybenzoate	E554	Sodium aluminium silicate
E218	Methyl p-hydroxybenzoate	E555	Potassium aluminium silicate
E219	Sodium methyl p-hydroxybenzoate	E556	Aluminium calcium silicate
E220	Sulphur dioxide	E558	Bentonite
E221	Sodium sulphite	E559	Aluminium silicate; Kaolin
E222	Sodium hydrogen sulphite	E570	Fatty acids
E223	Sodium metabisulphite	E574	Gluconic acid
E224	Potassium metabisulphite	E575	Glucono delta-lactone
E226	Calcium sulphite	E576	Sodium gluconate
E227	Calcium hydrogen sulphite	E577	Potassium gluconate
E228	Potassium hydrogen sulphite	E578	Calcium gluconate

E230	Biphenyl; diphenyl	E579	Ferrous gluconate
E231	Orthophenyl phenol	E585	Ferrous lactate
E232	Sodium orthophenyl phenol	E620	Glutamic acid
E234	Nisin	E621	Monosodium glutamate
E235	Natamycin	E622	Monopotassium glutamate
E239	Hexamethylene tetramine	E623	Calcium diglutamate
E242	Dimethyl dicarbonate	E624	Monoammonium glutamate
E249	Potassium nitrite	E625	Magnesium diglutamate
E250	Sodium nitrite	E626	Guanylic acid
E251	Sodium nitrate	E627	Disodium guanylate
E252	Potassium nitrate	E628	Dipotassium guanylate
E280	Propionic acid	E629	Calcium guanylate
E281	Sodium propionate	E630	Inosinic acid
E282	Calcium propionate	E631	Disodium inosinate
E283	Potassium propionate	E632	Dipotassium inosinate
E284	Boric acid	E633	Calcium inosinate
E285	Sodium tetraborate; borax	E634	Calcium 5'-ribonucleotides
E1105	Lysozyme	E635	Disodium 5'-ribonucleotides
감미료		E640	Glycine and its sodium salt
E420	(i) Sorbitol	E650	Zinc acetate
	(ii) Sorbitol syrup	E900	Dimethylpolysiloxane
E421	Mannitol	E901	Beeswax, white and yellow
E953	Isomalt	E902	Candelilla wax
E961	Neotame (as a flavour enhancer)	E903	Carnauba wax
E965	(i) Maltitol	E904	Shellac
	(ii) Maltitol syrup	E905	Microcrystalline wax
E966	Lactitol	E912	Montan acid esters
E967	Xylitol	E914	Oxidised Polyethylene wax
E968	Erythritol	E920	L-Cysteine
E950	Acesulfame K	E927b	Carbamide
E951	Aspartame	E938	Argon
E952	Cyclamic acid and its Na and Ca salts	E939	Helium
E954	Saccharin and its Na, K and Ca salts	E941	Nitrogen
E955	Sucralose	E942	Nitrous oxide
E957	Thaumatococin	E943a	Butane
E959	Neohesperidine DC	E943b	Iso-butane
E962	Salt of aspartame-acesulfame	E944	Propane

기 타	E948 Oxygen
E260 Acetic acid	E949 Hydrogen
E261 Potassium acetate	E999 Quillaia extract
E262 Sodium acetate	E1200 Polydextrose
E263 Calcium acetate	E1201 Polyvinylpyrrolidone
E270 Lactic acid	E1202 Polyvinylpolypyrrolidone
E290 Carbon dioxide	E1203 Polyvinyl alcohol
E296 Malic acid	E1204 Pullulan
E297 Fumaric acid	E1404 Oxidised starch
E325 Sodium lactate	E1410 Monostarch phosphate
E326 Potassium lactate	E1412 Distarch phosphate
E327 Calcium lactate	E1413 Phosphated distarch phosphate
E330 Citric acid	E1414 Acetylated distarch phosphate
E331 Sodium citrates	E1420 Acetylated starch
E332 Potassium citrates	E1422 Acetylated distarch adipate
E333 Calcium citrates	E1440 Hydroxyl propyl starch
E334 Tartaric acid (L-(+))	E1442 Hydroxy propyl distarch phosphate
E335 Sodium tartrates	E1450 Starch sodium octenyl succinate
E336 Potassium tartrates	E1451 Acetylated oxidised starch
E337 Sodium potassium tartrate	E1452 Starch aluminium Octenyl succinate
E338 Phosphoric acid	E1505 Triethyl citrate
E339 Sodium phosphates	E1518 Glyceryl triacetate; triacetin
E340 Potassium phosphates	E1520 Propan-1,2-diol; propylene glycol
E341 Calcium phosphates	E1521 Polyethylene glycol

- 독일에서 통관 거부, 주스 제품을 폐기처분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유럽 연합에서 승인한 식품 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의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식품 첨가물로는 E110-Sunset Yellow FCF, E385-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 acetate, 그리고 E210-benzoic acid가 있음

- 따라서 독일로 주스 제품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위의 식품 첨가물의 사용을 반드시 피할 것을 권장함

■ 중금속에 대한 규정

- 중금속에 관한 규정 중 주스와 관련있는 중금속으로는 주석이 있으며 캔 음료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음
- 유럽 연합에서는 주석의 캔 음료에서 검출 가능한 최대 허용량을 100mg/kg으로 설정하고 있음

< 중금속 최대 허용량 >

구 분	식 품	최대허용량 (mg/kg wet weight)
주 석	통조림 식품	200
	캔 음료	100

(자료: 유럽연합 웹사이트 Europa)

■ FTA 체결 전후 관세비교

- FTA 체결에 따라 모든 주스 제품들은 7월 1일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이전에는 주스 농도 및 설탕 첨가 여부, 그리고 100kg/net 가격에 따라 관세에 차이가 있었으나 FTA 체결로 모든 유형의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됨
-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FTA 체결 전 한국산 제품의 수입가격은 타 원산지 제품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었으나 무관세 혜택으로 수입원가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수출확대의 관건은 가격이 문제가 아닌 홍보를 통한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해 바이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임

< 주스 제품별 기본 관세 및 관세 철폐시기 >

CN코드	품목명	기본 관세	관세철폐시기
2009	과일주스및야채주스		
	오렌지 주스		
2009 11	- 냉동		
	--Brix67이상		
2009 11 11	--- 100kg당 가격이 30유로를 넘지 않는 것	33.6+ 20.6유로/100kg/net	즉시 철폐
2009 11 19	---기타	33.6	즉시 철폐
	--Brix67 미만		
2009 11 91	--- 100kg당 가격이 30유로를 넘지 않으면서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30%를 넘는 것	15.2+ 20.6유로/100kg/net	즉시 철폐
2009 11 99	---기타	15.2	즉시 철폐
2009 12 00	- 비 냉동, 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12.2	즉시 철폐
2009 19	-기타		
	-- Brix 값이 67을 초과하는 것		
2009 19 19	---기타		
	-- Brix 값이 20 초과 67미만인 것		
2009 19 91	--- 100kg당 가격이 30유로를 넘지 않으면서 설탕 함유량이 중량의 30%를 넘는 것	15.2+ 20.6유로/100kg/net	즉시 철폐
2009 19 98	---기타		
	기타단일감귤류주스		
2009 31	- 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100kg당 가격이 30유로를 넘는 것		
2009 31 11	--- 설탕이 첨가된 것	14.4	즉시 철폐
2009 31 19	---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	15.2	즉시 철폐
	사과주스		
2009 71	- 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 71 10	-- 100kg당 가격이 18유로를 초과하고 설탕이 첨가된 것		

(자료: 유럽연합)

■ 라벨링

- 일반 제품의 라벨의 의무표기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
 - 제품이름
 - 성분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유럽 연합 내 수입/판매업자
 - Net quantity
 - 영양성분
 - 원산지 (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6.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 틈새시장 공략형 제품 개발

- 현재 독일에서 오렌지, 사과 등의 전형적인 주스 제품시장은 슈퍼마켓 또는 디스카운터 업체들의 자사 라벨 제품과 소수의 대형 브랜드, 그리고 독일 지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어 전형적인 제품으로는 시장 확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새로운 맛과 건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대중적으로 건강에 좋은 과일 또는 야채로 알려져 있었으나 주스로 제품화되지 않았던 제품들을 중심으로 출시하는 방식으로 틈새시장 전략이 필요함

■ On-trade 유통채널 확대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주스 시장은 대부분 독일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어 수입산 제품의 확대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Coca Cola의 Minute Maid는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등의 on-trade 유통채널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음
- 한국산 주스도 아시안 레스토랑, 테이크 어웨이 전문점 등의 on-trade 유통채널을 통한 수출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주요 주스 생산지역 공략

- 주스의 상당량은 과일 생산지에서 농축액 상태로 수입되고 있어 독일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이러한 주스 생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살펴본 바 있음
- 주스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Baden-Württemberg (41개), Rhineland-Palatinate/Saarland (28개), North (25개), 그리고 Rhineland-Westphalia (25개)가 있으며 이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주스 농축액에 대하여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가장 생산업체가 많은 Baden-Württemberg 지역 내 생산업체들을 초대하여 한국산 주스 관련 설명회 또는 상담회를 열고 보다 직접적인 수출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

■ 박람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박람회 참가를 통해 수입 및 공급업체를 발굴하는 'push'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독일의 식음료 관련 박람회로는 매년 독일 Cologne에서 열리는 Anuga FoodTec가 있음
- 또한 독일과 인접해 있는 벨기에에서 열리는 Ethnic Foods Europe는 보다 민족 고유 음식을 중심으로 한 박람회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구 분	Anuga FoodTec 2012	Ethnic Foods Europe
개최시기	2012년 3월 27-30일	2012년 3월 27-29일
장 소	독일 cologne exhibition centre	벨기에 Brussel Expo
관련정보	www.anugafoodtec.com	www.ethnicfoodseurope.com

7. 참고자료

■ 관련 협회

European Fruit Juice Association
Rue de la Loi 221 box 5,
B-1040 Brussels

www.ajjn.org

Tel : +32 (0)2 235 06 20

Fax: +32 (0)2 282 94 20

ajjn@ajjn.org

Fruchtsaft (독일 주스 생산자 협회)

Verband der deutschen

Fruchtsaft-Industrie e. V. (VdF)

Mainzer Str. 253

53179 Bonn, Germany

www.fruchtsaft.net

Tel:+49 (0) 2 28 / 95 46 00

Fax:+49 (0) 2 28 / 9 54 60 20

info@fruchtsaft.net